



###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 우주론

우주란 무엇인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보고 던지는 질문이다. 우주에서 우(宇)는 사방상하(四方上下)로 공간을 뜻하고, 주(宙)는 왕고래금(往古來今)으로 시간을 뜻한다. 그래서 우주는 자연계에서 물질과 이것이 차지하는 4차원적 시공간 전체를 뜻한다. 우주는 기술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천우주(全宇宙)이다. 이것은 형이상학적 우주로 물리법칙이나 관측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관념적 우주이다. 흔히 신화적 우주관이나 종교적 우주관이 이에 속한다. 이런 우주는 주관적 우주로서 어떠한 규칙성이나 법칙성이 들어있지 않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고대 중국에는 태(太)라는 원초적 혼돈상태에서 밝고 맑은 기는 하늘을, 탁하고 무거운 기는 땅을 이루었으며, 또 천지에 음양이 나누어지고 만물이 생성했다는 우주생성에 관한 우주관이 있다.

둘째는 물리학과 수학에 의해 기술되는 물리적 우주이다. 여기서는 모든 물리법칙이 엄격히 만족되고 또 수학적 언어로 그 내용이 정확히 기술되는 것으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4차원적 또는 다차원적 세계를 뜻한다. 셋째는 관측 가능한 우주이다. 이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시공간의 우주를 뜻한다. 따라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는 관측기술이 발전될수록 더 확장되어 더 먼 과거의 우주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은 이러한 관측 가능한 우주의

존재하면 그 주위에 공간이 형성되는데 유한한 우주 물질은 유한한 크기의 구면 공간을 형성하며, 물질들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과 같은 크기의 밀어내는 척력이 균형을 이루므로 우주는 정지해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1920년대 허블의 관측에서 은하들은 서로 멀어져 간다는 우주 팽창의 발견으로 정적 구면우주는 그 타당성을 잃게 됐다.

1923년경 프리드만이 아인슈타인의 중력방정식의 일반 해를 구하여 진화론적 우주모형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1948년 가모프는 우주 대



그림 · 문병성

## 만유 연기법칙따라 계속 순환

범위를 더욱 멀리 확장하여 더 먼 과거의 우주를 살피는 것이다. 그러면 천체물리학자는 이런 관측 사실을 토대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물리적 우주론을 찾아낸다. 물리적 우주 중에서 특징적인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물리적 우주론에서는 다음의 가정을 쓴다. 첫째, 우주 내 물질은 공간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균일성. 둘째, 어느 방향에서 보든 우주는 같다는 등방성. 셋째, 다른 지역 사이에 물리적 간섭이 없다는 비간섭성. 넷째, 물리적 성질은 시공간적으로 균질하다는 균질성. 다섯째, 언제 어디서나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보편성이다. 아인슈타인은 그의 일반상대성 이론을 적용하여 정적 구면우주를 제안했다. 즉 물질이

올바른 우주 알게 될 때, 신의 뜻을 알게 되는 날, 심오한佛法 활짝 필 것

폭발성을 제안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태초에 우주 내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한 점(특이점)에 모여 있었다. 이것이 어떤 이유로 대폭발을 일으키며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것이 퍼져나가며 이동하면서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어내, 이들이 서로 결합하여 양성자와 전자라는 물질을 형성해, 여기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또 원자들이 결합하여 원시 은하를 형성하고 이로부터 별과 행성

이 생기고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대폭발 우주에서는 우주의 시작이 있고 또 팽창으로 물질의 밀도는 감소하며늘어간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미 2500여년 전 노자의 도덕경 중 '도화(道化)' 편에서 대폭발의 내용이 언급됐다. 즉 '절대적인 도(道)에서 기(氣)가 나오고, 그 하나가 다시 둘로 나뉘어 음과 양이 생기고, 그 둘인 음과 양이 서로 조화됨으로써 세 번째인 화합체가 생기며, 이 화합체에서 만물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도는 우주의 특이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성, 소멸의 섭리를 뜻하며, 기는 에너지이고, 양과 음

은 양성자와 전자를, 화합체는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만물은 원시 은하물질과 여기서 탄생된 모든 물질을 뜻한다.

'우주는 언제 어디서 보든 동일하다'는 완전 우주론적 원리를 가정하는 정상 우주론이 있다. 여기서는 무에서 유의 물질 창생을 가정함으로써 연속 물질창생론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우주론 시작도 끝도 없이 시공간적으로 무한하다.

불교에서는 우주의 생성이나 진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시공간적으로 무한한 우주에서 만유는 연기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불교의 우주론은 대폭발 우주론보다는 정상 우주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어떠한 우주모형이 가장 올바른지를 모른다. 아마 올바른 우주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주 신의 뜻을 아는 날로써 심오한 불법이 활짝 피어나는 날이 될 것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 이렇게 들었다

#### 덜 버리는 것이 최선

####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환경부는 2011년까지 생활폐기물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재활용하고, 소각하는 폐기물의 비중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0%대로 늘린다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18일 확정,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0년 41%였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2008년에는 50%, 2011년 53% 등 10년 안에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소각률을 높이기 위해 2011년까지 1조1천억을 들여 전국에 중·대형 소각장 90여 곳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량도 2005년 6%, 2008년 9%, 2011년 12%로 꾸준히 늘어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00년 0.98kg에서 2011년 0.91kg으로 줄어들게 된다.

환경문제의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쓰레기 문제 해결에 확실한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는 없다. 역시 이 경우에도 중요한 건 '일상'이다.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리는 생활, 필요 이상의 것은 탐하지 않는 무욕의 삶이다.

▶자연을 이용하기를 끝없이 꽃가루를 얻듯이 하라. 끝없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처럼.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 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발을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마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마라... 뽕·상아·뽕 같은 것으로 비늘 등을 만들지 마라, 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거나,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마라.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원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는 깨끗해지는 것이다.

입제 스님이 법당에 올라가 말했다.

"붉은 고깃덩이 위에 하나의 자리 없는 참사람이 있어서, 늘 그대들의 면문(面門)으로부터 출입하니, 아직 밝히지 못한 자는 잘 살펴 보아라."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자리 없는 참사람입니까?"

입제 스님이 선상(禪床)을 내려와 그를 움켜잡고 말했다.

"말해라, 말해!"

그 스님이 머뭇거리고 있자 입제 스님이 그를 탁 잡아버리고 말했다.

"자리 없는 참사람이라니 무슨 마른 뽕막대기 같은 소리냐?"

그리고 곧 방장(方丈)으로 돌아갔다.

도(道)는 말이 아니지만, 말을 통하여 드러난다. 그러나 도를 이렇다거나 저렇다고 말할 하면 도는 바로 왜곡되어 버린다. 도는 본래 왜곡될 수 있는 무엇이 아니지만, 사람이 스스로 말에 사로잡히고 생각에 사로잡혀서 도를 놓치고 만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말하



### '입제록' 통한 선 공부 ④

#### 지금 여기서 진행중

고 아무리 여러 가지로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도가 말이나 생각에 따라서 왜곡되거나 잘못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저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저렇게 생각하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 도이다. 차이가 있다

면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말과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생긴 오해와 착각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말과 생각을 만들거나 말과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도 아님이 없다. 모

든 것이 도 아님이 없지만, 움직임을 잃으면 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도는 움직임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보고 듣는 감각적 움직임, 생각하고 인식하는 의식적 움직임, 잡고 견고 흔들고 하는 육체적 움직임 등을 통하여 도는

말하면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살아 있는 움직임 그대로가 아니다. 오히려 움직임을 한 마디 한 마디 말하고 있는 지금의 말 소리에서 살아 있다. 그러므로 온갖 말들이 차별되고 다를지라도 움직임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마

않고,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본래 달라짐이 있을 수가 없다. 움직임을 말하면, 아무리 많이 말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한 마디 말일 뿐이고, 아무리 많이 행동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의 행동일 뿐이며, 아무리 많이 글을 쓰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한 획을 긋는 것일 뿐이다. 움직임을 어떻게 규정되거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규정하는 이 순간이 움직임이요, 머무는 이 순간이 움직임일 뿐이기에 때문이다.

자리 없는 참사람이란 바로 이렇게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머무 없는 움직임일 뿐이지, 어떤 식으로든 생각하거나 말하려 하면 벌써 어긋나 있다. 그러므로 머무 없는 움직임이라는 말도 이미 어긋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움직임과 하나 되고 도와 하나 될 것인가? 만약 도를 찾고 움직임과 하나 되려는 의식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본래 움직임에서도 도에서도 어긋난 적이 없다.

김태원 · 부산대 강사, 철학  
http://www.mindfree.net/

## 道는 움직임 통해 드러나는 것

###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관세음보살 Bodhisattva of compassion 원통전 hall of the Avalokitesvara

The Hall of the Avalokitesvara assumes the Avalokitesvara, the compassion Bodhisattva, Bom from a ray of light emanating from Amitabha's right eye. Avalokitesvara is thus closely related to Amitabha. And so assists those who request access to the Pure Land. The name means 'Hearer of Cries'.

She is frequently pictured with a vase and willow spray. Avalokitesvara often assumes a Water-moon Avalokitesvara or thousand-eyed and thousand-armed form. Each hand bears an eye so that the Bodhisattva can see how to help those in distress.

원통전에는 자비의 보살인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오른쪽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서 태어나 아미타불과 깊은 관계가 있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을 협시해 극락세계에 들어가 는 것을 돕는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중생의 고통을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관세음보살은 때때로 꽃병과 버드나무 가지들 손에 든 모습을 표현되기도 한다. 관세음보살은 수월관음이나 천수천안관음보살의 모습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천수천안관음은 각 손마다 눈을 있어 고통 받는 중생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살필 수 있다.

## 육신의 영생법

육신의 영생법은 장보승스님이 수십년간 수도하시어 깨달으신 내용들을 서술한 신앙수기이다.

육체는 죽으면 매장하여 흙이 되거나 화장하여 한줌의 재로 변화하여 결국 흙이며 그 흙은 신체의 일부이자 지구이며 다른 식물의 거름으로 또는 미생물의 영양분으로 활동함을 살펴하시면서 육신의 영생법을 알아야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천도 된다는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기도 하셨다.

가정에서 사삼구재를 지내는 내용이나 방법들이 상세히 수록되어 생활불교의 길잡이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육체를 현상이나 악신을 물리치는 퇴마로서의 경험담도 수록하였다.

● 신국판 260면 정가 1만원 ● 소포비용은 별도

● 연락처 : 031)532-6661  
017)380-6661

● 계좌번호 : 농협 225070-51-054089 장석근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저스님의 권유로 심산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고 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왔다.
  - 사지무력증이 나왔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픈면 무릎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천식이 멀어졌다.
  - 인파선이 나왔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낫았다.
  - 혈액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람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산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분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 스님들께는 서주물사하는 심정으로 영기에 드리고져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으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蔓蔘(黨蔘)을 드시기쉽게 달여 드립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평면 오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 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심정택)

## 비법전수!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함께 건강해지는 특별한 수련!

1. 단전호흡 : 性命雙修  
해명경, 대성정경의 저자 유화양 선사를 깨달음에 이르게한 도가의 수행비전 『영보필법』특별수련(소주전, 대주전...)
2. 금선기공 : 外氣放射  
整體法, 穴道術 (외기방사) 등을 익혀 스스로 건강해지는 법으로서 지도자의 역량을 키움.
3. 기공치료특강 : 道家養生氣功  
도가비전의 기공치료법 공개
4. 무당삼태극권 : 內丹修煉  
도인체조, 근골강화, 기혈유통으로 건강은 물론 내단을 이루어 감.
5. 수련 일정 및 장소  
● 일시 : 2002. 4. 1 ~ 4. 30 (1개월간) 19:30~  
● 장소 : 세계금선학회 (사당역11번출구150m)  
● 문의 : 02)512-7057, 7233 (팩스겸용)  
※ 특별수련 기간중 건강엔 스스로의 모습에 한번 놀라고 비전의 진법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 세계금선학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1-1 은혜빌딩6층

##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냉 습 진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한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행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응(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